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확인]

- 출처: 생윤·윤사 13+19 ebs 수완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선별함. 기출은 출처를 밝혔음. 출처가 없는 것은 ebs 문제임.
- 연습용이므로 일부 주제는 복수의 문제가 제시되기도 함.
- 연습용이므로 문항 순서는 평가원과 유사성이 없음.
- 연습용이므로 주관식이 있음. 발문에서 요구하는 대로 풀면 됨.

1)[18-수능-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어떤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존재들 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p> <p>을: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활동이 목표 지향적이라는 뜻으로,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항상적인 경향성이 있다는 말이다.</p> <p>병: 인류는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류의 역할은 동료 구성원과 대지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 < 보 기 >
- A: 평등의 원리에 따라 인간과 모든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 B: 인간은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닌다.
 - C: 개체주의적 관점을 지양하고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 D: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 속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ㄷ

2)[13-6-18, 윤리]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어진(仁)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없애는 데 힘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비난하는 이유는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만백성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을: 성인(聖人)과 지혜를 버리면 큰 도둑이 없어진다. 성인이 만든 법을 없애면 백성들은 서로 의논을 하게 된다. 육률(六律)의 가락을 흠뜨려 놓고, 피리와 거문고를 불태워 없애면, 천하 사람들의 귀가 비로소 밝아질 것이다.

- 갑은 인(仁)을 가족에서부터 사회로 확장시킬 것을 강조한다.
- 을은 무위의 삶을 위하여 감각에 의거한 가치 판단을 중시한다.
- 갑은 예악(禮樂)이 비생산적이라고, 을은 인위적이라고 비판한다.
- 갑, 을은 문물과 법제(法制)를 통해 천하의 이익을 추구한다.
- 갑, 을은 예악이 악한 성정(性情)을 더 부추린다고 비판한다.

3)[주관식] 이 정도는 그대가 알아서 고르셈.

(가) 갑: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계약 당사자들에 의해 도출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재화가 분배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이룩된다.

을: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며, 정당한 취득의 원칙, 정당한 양도의 원칙, 시정의 원칙에 입각한 재화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병: 정의의 원칙들은 그 자체가 다원적이고 복합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나)

- < 보 기 >
- A: 결과적 평등을 재화 분배의 목표로 삼는 것은 잘못된가?
 - B: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화를 분배해야 하는가?
 - C: 사회적 재화의 분배와 관련하여 국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 D: 정의의 각 영역들 간의 경계가 안정적으로 보호되어 각 영역이 자율성을 지녀야 하는가?

4)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 집단은 도덕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순수한 무욕의 도덕을 집단에서 찾기관 거의 불가능하다. 도덕적으로 모호한 사회적 타성과 도덕적 이상이 뒤섞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 어떤 사회 집단도 순수한 사랑의 영향을 수용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집단적 이기심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에는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

- 집단 간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 개인의 선의지는 사회적 갈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 집단의 이기심은 합리적 설득 이외에 강제력이 병행될 때 통제될 수 있다.
- 집단에 속한 개인은 집단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르는 경향이 있다.
- 비합리적 수단은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사회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5) [주관식]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정의의 제1원칙 자체를 적절히 규정된 최초의 상황에서 이루어질 원초적 합의의 대상으로 본다. 이러한 원칙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합리적 인간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정하기 위해 평등한 입장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원칙이다.
 을: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의 일반적인 개요를 말하자면, 이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보기

- ㄱ. 갑은 정의의 원칙을 가상적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원칙이라고 본다.
- ㄴ. 을은 최소 국가는 재화의 이전 과정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ㄷ. 을은 갑과 달리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본다.

6)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도덕규범이나 원칙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이나 원리의 타당성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을: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한 윤리 문제에 대해 적절한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컨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병: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특정 사회의 도덕규범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사실적 지식을 축적하는 데 있다. 각 사회 규범을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① 갑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과 가치 중립성을 강조한다.
- ② 을은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을 윤리학의 목적으로 한다.
- ③ 병은 도덕 추론에 대한 논리적 구조 분석을 핵심 과제로 강조한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윤리학의 이론 정립보다 현실적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 ⑤ 을은 병과 달리 갈등 해결을 위한 도덕적 대안의 탐구를 강조한다.

7) [주관식]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만민의 대표자들이 자기가 속한 국가의 국력이나 경제 발전 수준 등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정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주어지는 차등의 원칙이 아니라 단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 제도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둔 국가 간 정의 원칙만을 채택할 것이다.

(나) 원래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지원을 뜻하는 ㉠은/는 최근에는 일방적 시혜가 아닌 상호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기

- ㄱ.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 확립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ㄴ. 자율적 선택에 의해 소득 일부를 기부하는 행위로 부유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다.
- ㄷ. 국가 간에 천연 자원 분포의 우연성을 조정함으로써 자원을 재분배하려는 것이다.
- ㄹ. 사회 정의 실현이 가능한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하면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8) [19-6-18+20-9-15]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전쟁의 완전 종식과 영구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입니다.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전쟁 수단의 금지와 국가 간 연맹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을: 전쟁 종식만으로 평화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 ① 갑: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영원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② 갑: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 우호와 시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
- ③ 을: 평화를 위해 인간 안보를 확장시켜 국가 안보를 완성해야 한다.
- ④ 을: 평화는 어떠한 경우라도 평화적 수단으로만 성취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안락사는 인간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허용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려는 인간의 개입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을: 그렇습니다. 타인의 개입을 통해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죽음을 이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죽음에 대한 인위적 개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갑: 아닙니다. 환자를 '죽이는 것'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인간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역시 인간 개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도적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종결짓는 행위인 데 비해,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생명 연장을 위한 비상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 ① 적극적 안락사에서 타인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가?
- ②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인가?
- ③ 환자의 선택이라고 해도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는가?
- ④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 연장 여부는 가족이 결정해야 하는가?
- ⑤ 소극적 안락사도 적극적 안락사처럼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가?

10)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고유한 선을 가지는 실체들에게 부여되는 가치로서 동등한 내재적 존엄성을 갖는다.

을: 평등은 도덕적 이념이지 사실에 대한 단언이 아니다. 인간과 동물 종(種) 간 실질적인 능력 차이가 그들의 필요와 이익에 대한 차등적 배려를 정당화할 논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병: 동물과 인간의 몸은 자동 장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적 영혼은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운동이나 생리 현상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이성적 영혼은 인간의 사유에만 관여할 뿐이다.

- ① 갑이 을에게: 동물과 달리 식물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 ② 갑이 병에게: 도덕적 행위 능력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③ 을이 갑에게: 이성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게 됨을 모르고 있다.
- ④ 을이 병에게: 동물도 인간처럼 이익 관심을 지니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⑤ 병이 을에게: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에 위배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11)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호혜성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념에 따르면 나의 의무는 다른 사람의 권리이며, 또 다른 사람의 권리는 나의 권리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에 대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만이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근거로 권리를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탐구하는 윤리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책임 윤리는 권리와 호혜성의 모든 이념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미래는 나의 권리를 존중하는가?'와 같은 물음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기

- ㄱ. 현세대는 미래 세대의 실존적 권리에 대해 응답해야 할 책임을 지는가?
- ㄴ. 전통적인 윤리학은 시공간을 넘어 모든 미래 세대에 적용될 수 있는가?
- ㄷ. 미래 세대는 현세대의 행동이 초래한 불행에 대해 비난할 권리가 있는가?
- ㄹ. 책임의 범위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한정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2)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개인은 자신의 사적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개인은 자신의 사적 정보를 비롯하여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을: 개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보 삭제를 청구한 개인의 기록이 게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열이 생겨날 수 있다. 개인의 희망을 이유로 당사자가 요구하면 공공성을 지닌 기록까지 삭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은 일정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 ① 갑은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삭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② 갑은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개인의 자유로운 기록 삭제는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 ④ 갑은 정보의 익명성 보장을, 을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한다.
- ⑤ 갑, 을은 잊힐 권리를 보장하여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13)[주관식]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공동의 정의관에 바탕하여 부정의에 저항함으로써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안정을 가져옵니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불의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떠맡아야 할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갑



을

- 보기**
- ㄱ. 갑은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의 변화를 호소하는 정치 행위라고 본다.
 - ㄴ. 을은 의도적인 위법 행위는 시민 불복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ㄷ. 갑은 다수의 정의관에서, 을은 개인의 양심에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찾는다.
 - ㄹ. 갑, 을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은 정의라는 상위의 가치에 합당해야 한다고 본다.

14)다음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우리의 초점이 경제 성장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 생명을 구하는 것, 고통을 줄이는 것,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원조는 절대 빈곤 상태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반드시 더 나은 제도의 수립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현저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의무이다.

- ① 해외 원조의 목적을 빈곤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의로운 제도 확립에 두어야 한다.
- ② 절대 빈곤 상태의 사람들을 돕는 해외 원조는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 ③ 해외 원조는 결과와 무관하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실천해야 한다.
- ④ 해외 원조의 대상자는 개인의 형편이 아닌 국가 경제력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
- ⑤ 해외 원조의 실행자가 원조로 인해 얻는 고통은 원조 대상자가 얻는 이득을 넘지 말아야 한다.

15)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좋은 것은 추구하며 행해야 하고, 나쁜 것은 피해야 한다. 이 원칙이 우리 인간의 모든 실천적 행위의 근본 지침이 되며, 이 근본 지침 위에 모든 다른 지침이 기초를 두고 있다. 좋은 것이란 우리의 성향이 향해 있는 어떤 것이다. 이러한 성향에는 자신의 개별적 삶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에 대한 성향, 자신의 종의 동일성이 보존되는 것에 대한 성향, 진리를 알고자 하고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문제 상황〉

A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공부를 게을리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귀찮아한다.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어야 함을 알고 있지만, 게임을 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 ① 자연적 성향에 따라 진리 탐구와 교제를 위해 노력하세요.
- ② 사회적 관계를 멀리하면서 자신만의 주체적인 진리를 추구하세요.
- ③ 게임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 ④ 자연적 본성을 극복하고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세요.
- ⑤ 이성에 따라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포함한 모든 욕구를 없애세요.

16)[주관식]표는 어느 사상가를 상대로 한 가상의 설문 조사 결과이다. ㉠, ㉡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질문	응답	
		예	아니요
(1)	목적과 정체성을 갖는 삶의 주체만이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가?	V	
(2)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류를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은 잘못인가?	V	
(3)	㉠	V	
(4)	㉡		V

- 보기**
- ㄱ. ㉠: 삶의 방향과 희망 등을 갖는 존재는 도덕적 권리를 갖는가?
 - ㄴ. ㉠: 의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고유의 목적을 갖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가?
 - ㄷ. ㉡: 개체뿐만 아니라 종(種)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ㄹ. ㉡: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가?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영원한 여성성이란 하나의 속임수이다. 왜냐하면 인간 발달에서 자연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며,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는 여성이 본래 남성에 종속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여성이 본래 남성을 능가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여성은 생물학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극복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희생자이다. 여성이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을: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본성 때문에 그들이 각각 현재와 같은 기능과 위치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각자가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도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런 불의는 당사자인 여성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보기**
- ㄱ. 갑: 여성성은 사회적·역사적 산물이다.
 - ㄴ. 을: 여성의 종속은 여성의 타고난 본성 때문이다.
 - ㄷ. 을: 양성 평등은 사회적 유용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ㄹ. 갑, 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지지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는 세계의 종교적·정치적 평화를 위하여 세계 종교가 공유하는 윤리적 근본 원칙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계 윤리의 두 근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람은 인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바대로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행위 해야 한다. 그런데 세계 윤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종교 간 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종교는 자신들이 세계 안에서 지녀야 할 세계 평화를 위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진리에 대한 맹목적인 광신이나 진리에 대한 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① 종교 간 대화를 통해 진정한 세계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 ② 인류가 따라야 할 보편적 도덕 원리 중 하나는 인간 존중이다.
- ③ 종교 간 대화를 위해 자신이 믿는 종교적 진리를 포기해야 한다.
- ④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반성은 종교 간 대화의 전제 조건이다.
- ⑤ 세계 종교가 공유하는 가르침들로부터 윤리적 근본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19) [주관식](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나)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가)

갑: 사법적 형벌은 오로지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만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인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사형뿐이다.

을: 사형 제도는 더 나은 예방 효과를 가진 종신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최고의 형벌인 사형이 사회에 대항하는 범죄를 행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시대의 경험이다.

병: 사회 계약은 시민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사회 계약을 할 때 시민은 국가에 생명 박탈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국가는 타인을 살해한 시민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다.

(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 보기**
- ㄱ. A: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 ㄴ. B: 범죄자에 대한 처벌권은 계약에 의해 국가에 위임되는가?
 - ㄷ. C: 사형은 종신 노역형에 비해 형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가?
 - ㄹ. D: 살인자는 계약 위반자이므로 시민의 자격을 상실하는가?

20)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모든 국가는 일종의 생활 공동체이며 모든 생활 공동체는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성립된다. 인간은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행동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 더 큰 선을 목표로 할 것이다. 국가는 최고선을 목표로 한다.

을: 어떤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입법부에 위임함으로써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들 상호 간에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 ① 갑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국가가 구성원들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기구라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인간의 정치적 본성과 무관하게 국가가 형성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국가를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산물이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정치적 복종의 근거를 국가로부터 오는 혜택과 이익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21)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주장>의 ㉠에 대해 제시할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과거의 차별과 무관한 현대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부정의한 결과를 가져온다.

을: 소수 집단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현대의 제3자가 차별적 행동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행해진 차별로 인해 이익을 누려 온 집단에 속하기 때문이다.

병: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공한 소수 집단의 사람들은 같은 집단의 젊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델이 되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시킴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주장>

㉠ 여성 고용 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

- ① 갑: 역차별로 부정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② 갑: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③ 을: 차별받아 온 집단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안이다.
- ④ 병: 사회적 유용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 ⑤ 병: 사회 혼란의 원인인 다양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22)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전제: 가치 중립적인 것을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소전제: ㉠

결론: 과학 기술을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과학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므로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

너의 주장을 삼단 논법으로 정리하면 칠판의 내용과 같겠군.

- ① 과학 기술 자체에 선악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② 과학 기술자가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이미 가치가 개입된다.
- ③ 과학 기술자는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전념해야 한다.
- ④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외적 책임이 없다.
- ⑤ 과학적 발견이 지식으로 인정받는 과정에 가치가 개입되는 것은 잘못이다.

23)(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 상황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일심법(一心法)에 의하여 두 가지 문이 있으니, 이 두 가지 문이 모두 각각의 일체의 법을 총괄한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일체 법문의 근본 뜻을 알아야 한다. 이 한 마음[一心]과 한 마음에서 비롯된 이문(二門) 안에는 하나의 법이나 한 뜻이라도 포섭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여러 다툼[諍]들은 한 마음[一心]으로 귀결될 수 있다.
(나)	세계 곳곳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들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교 간, 종파 간 갈등이 노출되기도 한다.

- ① 사람들은 모두 절대자[神]에게 귀의해야 한다.
- ② 종교가 가진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③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대하여 깊이 공부해야 한다.
- ④ 각각의 종교가 자기 종교만의 독특한 교리를 강조해야 한다.
- ⑤ 종교의 근본정신이 통하는 부분을 찾아 화(和)를 모색해야 한다.

24) 밑줄 친 스승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3년 상(喪)이 너무 길지 않느냐고 하면서 1년만으로 상을 마치면 어떻겠는가 하고 묻자 스승은 다시 제자에게 묻는다. “네가 그렇게 하고서도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어도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제자가 자기는 그렇다고 하자, 스승은 네가 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제자가 나가자 스승은 다른 제자들에게 “그는 어질지 못하구나!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은 지나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다. 3년 상은 세상 사람들이 다 지내는 것이다. 그도 부모에게서 3년 동안 사랑을 받지 않았더냐!”라고 말했다.

- ① 효도의 핵심은 물질적 봉양(奉養)에 있다.
- ② 효의 실천은 인(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 ③ 효도란 일방적으로 행해져야 할 도리이다.
- ④ 효는 시비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사랑이다.
- ⑤ 나의 부모와 남의 부모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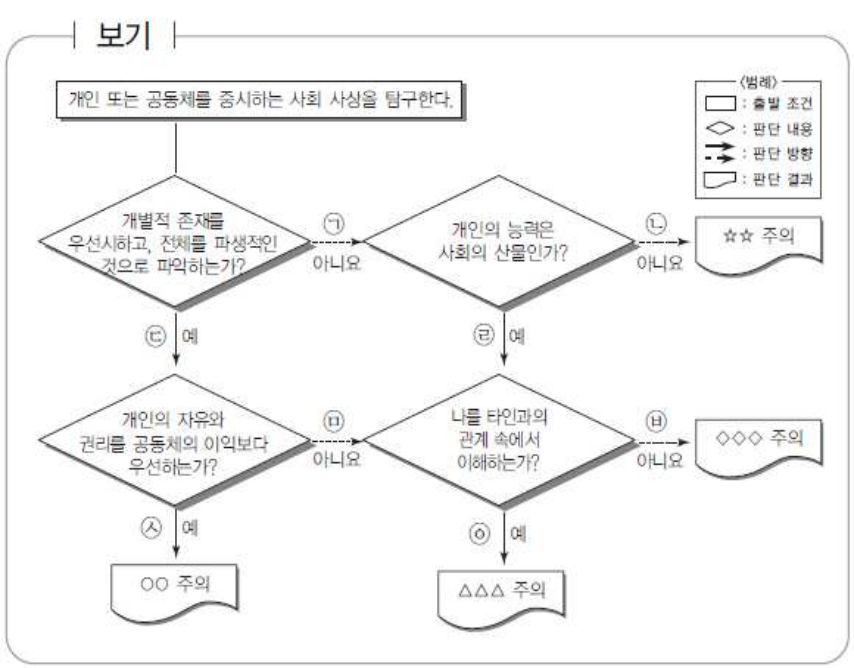
25)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와의 가상 대화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스승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정치란 무엇입니까?
 스승: 식량을 넉넉하게 하고, 군비(軍備)를 충족하게 하여 백성이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학생: 부득이한 일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셋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스승: 군비를 버려야 한다.
 학생: 부득이한 일로 나머지 둘 중 하나를 버린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스승: 식량을 버려야 한다. 자고로 사람에게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성이 믿지 않는다면 나라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학생: ㉠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백성은 통치자의 명령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백성의 대표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③ 백성의 뜻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 ④ 백성들의 경제적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⑤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6) 다음 입장을 찾아가는 옳은 경로를 <보기>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각 개체는 자기 자신을 오직 다른 개체들 안에서만 발견하고 이해하며 사랑한다. 각 정신은 오직 다른 정신들로부터만 자신을 전개하며, 다른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인간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개별적 사유와 사랑,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사유와 사랑과 미움이 서로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존재할 뿐이다.



27) 그림에 나타난 사상이 주장하는 자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고 한다.”
- ②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이 만물을 고루 감싼다.”
- ③ “도(道)가 장차 시행되는 것은 하늘의 명[天命]이다.”
- ④ “하늘이 뜻 사람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 ⑤ “하늘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났다.”

28) 다음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행위가 옳은 경우는 그 행위가 유덕한 성품을 갖춘 행위자가 그 상황에서 할 행위와 같을 때만이다. 가령 낙태의 경우, 해외에서 휴가를 즐기 위해 7개월 된 태아의 중절을 결심하는 것은 무정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이유에서 비난이 가능하다. 또 부모가 되기에 적합한 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는 것이 두려워 낙태시키는 행위도 옳지 않다. 그러나 아직 어머니가 될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10대 소녀가 낙태를 했다면 그것은 검양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인정될 수 있다.

- ① 도덕성을 지닌 여성의 태아만 인간으로서의 지위가 존중된다.
- ② 모든 인간이 지닌 생명의 존엄권은 태아의 생명에도 적용된다.
- ③ 유덕한 성품을 근거로 낙태를 한다면 삶의 자율권이 침해된다.
- ④ 낙태할 권리의 도덕성은 각 상황에서 사람의 성품으로 판단된다.
- ⑤ 유덕한 행위란 무고한 태아를 낙태로부터 보호할 때 완성된다.

29)(가)의 입장에서 (나)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국제 사회에서 분쟁의 원인은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외교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국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나) 국제 관계에서의 전쟁이나 갈등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개별 국가의 상호 협력 가능성을 인정하고 국제기구, 국제법, 국제 규범 등을 통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다면 국제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보기

ㄱ. 현실에서는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ㄴ. 세력 균형은 상대국을 자극하여 오히려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ㄷ.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는 국제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ㄹ. 국제기구나 비정부 기구 등 국제 사회는 실제로 다양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 대지 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과 토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윤리이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 윤리가 진화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 주어야 한다. 즉,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낱알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생명 공동체의 온정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 ① 대지보다 개개의 생명체들이 존중되어야 한다.
- ② 대지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③ 인간은 인간 공동체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 ④ 인간은 생명체들의 진화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 ⑤ 인간은 생명 공동체에 대해서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31)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반성적 평형 상태에서 우리가 숙고한 판단들이 보여 주는 도덕감에 관한 이론이다. 이러한 도덕감이 우리의 사고와 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은 행위론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유사한 현실적 상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받아들여지게 될 원칙들이 우리의 도덕적 추론과 행위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 ① ㉠은 결과가 공정하면 절차는 상관없다고 간주한다.
- ② ㉠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을 주장한다.
- ③ ㉡은 정의의 원칙을 정하기 위한 가상적 상황이다.
- ④ ㉡에 처한 개인들은 타인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이타적인 존재이다.
- ⑤ ㉡에 처한 개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한 비합리적인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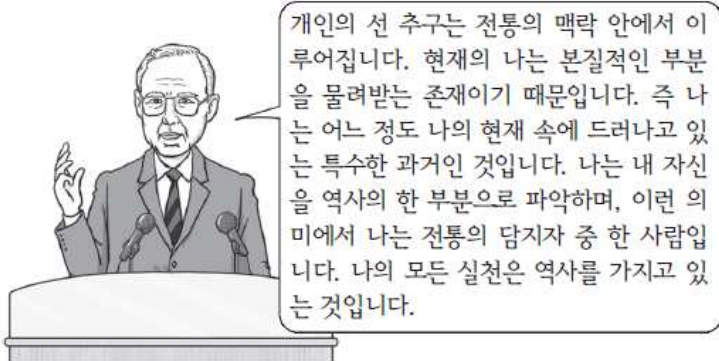
32)(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우리는 과학 기술의 긍정적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과학 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과학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수단이다. 그것은 인간이 과학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드느냐, 과학 기술이 인간의 무엇을 위해 기여하느냐,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서 과학 기술이 만들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 ① 과학 기술은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원인이므로 거부해야 한다.
- ② 과학 기술은 참과 거짓의 인식론적 판단 대상으로만 여겨야 한다.
- ③ 인류는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④ 과학 기술은 정치·경제적 요구나 사회 가치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⑤ 과학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33)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동체의 오랜 전통과 삶의 양식을 존중하고 따른다.
- ② 사회적 맥락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덕성 함양에 힘쓴다.
- ③ 모든 관련된 당사자들의 쾌락을 공평하게 고려하여 행위한다.
- ④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을 이성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만을 따른다.

34)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행자들이여, 세상에는 두 극단이 있다. 두 극단 중 하나는 욕망이 이끄는 쾌락으로 빠지는 것이다. 그것은 천박하고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데 열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피로와 고통만 남길 뿐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 두 극단을 넘어서면 바른길[中道]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지혜를 증진하고 번뇌를 쉬게 한다.

보기

ㄱ.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ㄴ. 세계를 바로 보아야 고통과 쾌락이 모두 소멸될 수 있다.
 ㄷ. 내세에서의 영생보다 현세의 행복이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ㄹ.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5)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국가를 수립할 때 우리가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어느 한 집단만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 전체가 최대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에서 정의가 가장 잘 발견되고,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불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각자가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각자가 여럿이 아닌 한 사람으로 되도록 하고, 또한 이렇게 해서 나라 전체가 자연적으로 여럿이 아닌 하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유덕한 인간은 이성적 기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다.		✓	✓		✓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하고 부정한 사람은 불행하다.		✓			✓	✓
모든 계층이 통치 행위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		✓
이상적 인간과 이상 국가가 갖추어야 할 덕은 다르지 않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36) 사회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n 시간 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취하는 것은 그 노동자로부터 n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n 시간 일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 주장이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업자들에게 곤궁한 자들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하는 데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개인들에게 곤궁한 자들을 위해 매주 5시간씩 추가로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반대할 것이다.

을: 시민 X가 정치적 공직에 있어서 시민 Y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경우에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하게 된다. 하지만 X가 자신의 공직으로 인해 다른 영역들에 있어서 Y보다 유리하게 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전체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

- ① 갑: 원초적 입장에 기초하여 재화의 공정한 분배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 ② 갑: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될 때에 허용되어야 한다.
- ③ 을: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기만 하는 최소 국가가 바람직하다.
- ④ 을: 분배에서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가치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 ⑤ 갑, 을: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이 사라진 사회가 되어야 한다.

37)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국가는 자연의 창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임이 명백하다. 본성적으로 국가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은 사악한 인간이거나 또는 초인이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을: 개인이 정부의 통치권 안에 있는 어느 것을 소유하거나 향유하건 간에, 그는 그 행위에 의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며 그것들을 향유하는 동안에는 정부의 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병: 정부에 복종하는 원천은 안전과 보호라는 이익이다. 이런 이익은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일 때에는 획득할 수 없다. 그런데 이익이 정부 수립의 근본 동기이므로 이익이 없는 곳에는 정부도 있을 수 없다.

- ① 갑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가 형성된다고 본다.
- ② 을은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정치적 의무가 부과된다고 본다.
- ③ 병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면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정치적 의무가 부과된다고 본다.
- ⑤ 을, 병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정부에 대한 불복종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38)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만 가해질 수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을: 형벌의 가치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형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킬 수밖에 없다.

- ① 갑: 형벌은 범죄자의 인격 존중과 무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② 갑: 형벌의 유용성이 없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을: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야 한다.
- ④ 을: 형벌의 질과 양은 오직 보복법만이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 ⑤ 갑, 을: 형벌의 정도는 범죄의 정도에 비례해서 범죄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39)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우리답게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뜻한다. 우리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자로 경험한다는 사실에서 여타의 동물과 구별된다.
 을: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옳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 ① 갑: 죽음에 대한 사유는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자각하게 한다.
- ② 갑: 죽음 이후에 인간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 ③ 을: 죽음은 고통이므로 자신의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을: 죽음은 현실 세계를 벗어나 또 다른 세계로 윤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⑤ 갑, 을: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나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

40) [20-수능-10 선지 응용]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차등 원칙은 운명의 우연성을 공정하게 다루는 정의로운 방식이다.
 을: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 낸다.

- < 보 기 > —
- ㄱ. 갑: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연성으로 취한 이득은 정당화될 수 없다.
 - ㄴ. 갑: 사유 재산권은 정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ㄷ. 을: 자연물에 대한 최초 취득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ㄹ. 을: 분배 결과에 초점을 맞춘 정의론은 소유권리를 침해한다.

전체 단원 zola amazing 답

- 1) ②

5%	65%	6%	14%	10%
----	-----	----	-----	-----
- 2) ③
- ☞ Zola Guide 생활과 윤리 범위 내에 들어온 윤리 시절(14학년도 이전) 문제임. 수업 시간에 조심하라고 강조하였음. 갑은 목가임. 생윤 20-수능-4의 을 제시문과 연결됨.
- 3) 가, 나, 르
- 4) ⑤
- 5) 가, 르
- 6) ⑤
- 7) 가, 르
- 8) ③
- ☞ Zola Guide 틀린 분은 남은 기간 동안 짠 거 하지 말고 <<개념 복습+기출 확인>> 이 두 가지에 '만' 집중할 것! 남은 거 할 때가 아님!!
- 9) ⑤
- 10) ④
- 11) ①
- 12) ③
- 13) 나, 르
- 14) ⑤
- 15) ①
- 16) 가, 나, 르
- 17) ④
- 18) ③
- 19) 나, 르
- 20) ④
- 21) ⑤
- 22) ②
- 23) ⑤
- ☞ Zola Guide 원효의 '일심'과 '화쟁'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필기와 자료 교재를 꼭 확인할 것.(교재번호 6-1)
- 24) ②
- 25) ③
- ☞ Zola Guide '민본주의' 개념을 떠오르지 않았다면 필기와 자료 교재를 꼭 참고할 것.(교재번호 3-8)
- 26) ③
- 27) ②
- 28) ④
- 29) ②
- 30) ⑤
- 31) ③
- 32) ④
- 33) ①
- 34) ③
- ☞ Zola Guide = 조심. 불교에서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야 진정한 나라가 될 수 있음'이라는 문장이 맞을까 틀릴까? 이걸 판단 못하면 남은 바나나 기질이 있다는 의미임. 정답은 앞의 문장은 맞음.
- 35) ④
- ☞ Zola Guide 윤사 문제이지만 생윤 기본 지식으로 '답'을 골라낼 수 있음.
- 36) ④
- 37) ④
- 38) ⑤
- 39) ①
- ☞ Zola Guide 선지 ①이 바로 답으로 나와서 아쉬움. 선지 ⑤가 나름 매력적인 오답 선지임.
- 40) 나, 르